

본문 : 마태복음 1 장 18-23 절

제목 : 다윗의 자손 예수

1. 다윗의 족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뼈대 있는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맨 첫 책인 창세기와 맨 마지막 책인 역대기가 족보 책이니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우리는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복잡한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을 물려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요셉의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나신 것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요셉의 씨앗으로 나신 분이 아니니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인정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왜 필요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구절들이 모두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다윗언약’으로 알려져 있는 사무엘하 7 장 12-16 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 외에도 이사야서 9 장 6-7 절과 미가서 5 장 2 절도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공통적으로 미래의 이상왕은 다윗의 후손이 되어 다윗의 방식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되려면 적어도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그 대표적인 예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 이후 자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칭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마카베우스 가문이었습니다. B.C. 167 년 경 마카베오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갈라진 헬라제국 중 하나였던 셀류커스 왕조에 항거하여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맛다디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첫째 아들이 시몬이고 넷째 아들이 마카베우스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왕조를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라 불리웠죠. 그런데 이 왕조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왕조의 마지막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후에 헤롯이 자칭 왕이라 하고, 그의 사후 헤롯의 아들 네 명이 각각 팔레스틴 지역을 4 등분하여 관할하게 됩니다. 이 사분의 일 왕(퀴터왕)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분봉왕(Tetrarch)입니다. 헤롯가문은 에돔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고 로마에 의해 고용된 일종의 정치용역업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때보다 비참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믿음으로 아버지가 되어주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도 아닌데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물학적인 자식은 아니었지만 요셉은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예수를 입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사람도 족보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겐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으나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이었죠. 사무엘도 에브라임 족속이었지만 레위지파로 편입되었죠. 그런 폭넓은 융통성과 신축성으로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로써 다윗의 족보에 편입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나이가 15 살 정도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예수를 낳은 것이죠. 예수의 승천 이후에 마리아가 초대 교회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성령 잉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알렸을 겁니다. 요셉이 예수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눈물 날 지경입니다. 그가 겪었을 번뇌와 갈등, 주저함과 망설임이 오늘 본문에 매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남여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결단을 통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고백하는 아내를 영접함으로, 아내에게 그 말을 전달한 가브리엘을 영접함으로, 가브리엘을 통해 성령 잉태를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계약적 신실하심을 받아들임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가 된 것이지요. 마치 믿음으로 100 세가 다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될 것을 받아들였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의 태를 성령으로 여셨습니다.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신 겁니다. 마리아 또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요셉은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의롭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충실히 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자 약혼자 요셉에게 당연히 이 사실을 알렸겠죠. 이 통보를 들은 요셉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혼증서를 써서 혼인 관계를 파하는 겁니다. 이혼증서를 쓸 경우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구요. 둘째 선택은 이혼증서를 쓰지 않고 조용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친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죠. 20 절 말씀은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많은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 '오랜 시간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마음엔 여러가지 감정들이 뒤죽 박죽해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배신감과 분노와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취하여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파혼하여 안전하게 보내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섞여 있었겠죠. 마리아의 성결함과 사랑스런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여인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 살려주는 것이었죠. 여기에 애절한 의로운 남자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였던 것이죠.

3. 다윗의 통치

그렇게 번뇌가 깊어갈 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뭘까요? 직접 나타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멀쩡한 상태에 있을 때 직접 나타난 것은 상당한 압박을 주겠지요. 그런데 꿈에 나타난 것은 선택하는 당사자에게

결정권을 많이 유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적으로 눌러서 억지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짝 물러나신 것이죠. 꿈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던진 첫마디는 뭘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야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아브라함 이후 천년 이상 달려왔던 구속사의 정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였던 하스몬 왕조는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 왕조를 계승한 헤롯 가문은 다윗의 통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윗의 통치란 도대체 어떤 통치였길래 그 통치가 재현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걸까요? 사무엘하 8 장 15 절에 다윗은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공평과 의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미쉬파트 Mishpat 와 쟈다카 Tzedakah 입니다. 사법적인 정의(미쉬파트)와 분배적 정의(쟁다카)라 설명드린 적 있죠. 다윗의 통치가 바로 미쉬파트와 쟈다카의 통치였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 장은 다윗이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실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루 종일 지방민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각양각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모든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어,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방 호족세력들을 적절하게 억제해서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윗은 밑바닥 백성들, 기층민중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임금이며 직접적인 통치를 하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퀴테이션 마크가 붙을 때, 이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구요.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아이를 통해 이뤄짐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4.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통치)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며 그 아기를 예언하였던 먼 옛날 예언자의 말씀까지 인용하고 있죠. 요셉이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도 천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집중적으로 출몰하는 구역은 성경을 깊이 알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입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에 누가복음 말씀을 필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필사란 것을 생에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옛적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본을 필사했다고 하죠.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에 양피지에 매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하기 전 목욕 재개하고 야웨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면 특별히 경건한 마음으로 옮겨 적었다고 하죠. 아무튼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데, 이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 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다윗의 후손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완의 구원 역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생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에게 천사가 전해준 아기의 이름은 우리 말로 치면 “구원둥이, 해방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 또는 예슈아와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말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란 뜻입니다. 당시 뉘앙스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이 때 죄란 말은 시편 107 편 10-11 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것인데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로마의 압제의 원인을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압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시체가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몰려들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로마가 압제해 온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두가 율법의 멍에를 매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게 되면 고도의 자치적인 삶이 가능해 집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의로운 삶을 살면 국가가 필요 없어지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는 이유는 모두가 자기의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죄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면 자치권을 잃어버리고 압제자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 해방둥이를 잉태하는 공동체

여러분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고민을 얼마나 심각하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날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갈망하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종이 속에 박제된 이야기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따라야 할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주체로 우뚝 서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 백성들을 옹아매는 중심 죄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 생각하며 골몰하며 씨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셉에게 온 천사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이유는 요셉이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를 해줄 다윗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요셉이 씨름하고 있었던 그의 구원을 향한 갈망과 구원사적인 지식에 호소했던 것이죠. 다윗의 족보는 가치의 족보이지 생물학적이고 혈연적인 족보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다윗의 가치를 구현할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란 것을 요셉은 이해했던 겁니다. 다윗처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인 교회가 시대의 중심 죄악을 이해하고 다윗의 통치를 이 땅위에 이루어 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구원둥이"를 우리도 잉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과업이 무엇이고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구원사적인 미완의 과제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징을 가진 구원둥이를 잉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적인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시대를 해방둥이와 구원둥이의 활약의 무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맞서 싸울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를 잉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의 무한 확장이야 말로 이 시대의 중심부를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끌어와야 합니다. 지난 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2024 년에 대통령이 군인들을 국회에 끌어들여 총부리를 백성들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 성향을

떠나서 상식을 벗어난 해프닝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섬김의 자리인 국가 원수의 자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에 불과한 듯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행태는 이 시대 욕망의 확장을 노리는 백성들의 단면일 뿐입니다. 누구든 저 자리에 가면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란 그 욕망과 싸워야 하고,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리니, 선정이니, 대의니, 민주주의니 이런 것들은 욕망 앞에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국민들의 단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폭군을 발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 오며 희생해 온 공동체 의식과 공의와 정의를 다시금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잉태해야 합니다. 내 배채우기 위해 남의 밥 뺏아서 내 밥그릇을 고봉으로 쌓아 올리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서로 돌보며 보살피는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세계가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가 소중하듯 다른 이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치가 소중하듯 다른 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야하고, 회사에서 일어나야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야 진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이죠. 나의 자유와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 다른 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몰상식한 행위가 우리 직장과 가정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 사회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치를 잉태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지킬 때, 공권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나라의 비전을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 합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것들을 이끌고 다닌다(사 11:6)."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직접 임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 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죠.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들이 어울리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육식 동물이 육식을 포기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나누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해 집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뤄질 나라의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전과 가치를 마음에 잉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갈망하는 요셉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